

# 이월호



- 신년사 2
- (개별LP평가의) 16년 참여자들의 자립생활을 돌아보며..... 3
- 2016년 하반기 실무자 역량강화 워크숍 4
- (자립생활주제) 브라매안전체임과 방문과 의식문화체험 6
- 2016년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평가의 8
- 나의 인턴 생활 10
- 가자! 강북구 평가의 소녀상 제막식 행사로 12
- 최근 국정농간의 본질은..... 14
- 강북센터의 새로운 식구가 된 어효숙입니다. 16
- (장애인에티켓) 지체장애  
, 방문하기, 사적인 물건에 대한 에티켓, 식사 초대/제공, 17
- 19
- 이달의 정보 21
- 이달의 시 22
-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CMS자동이체 신청서
- 광고 23



# 송년사

안녕하십니까

강북센터 소장 정종남입니다.

2017년 희망찬 정유년 붉은 닭의 해가 밝았습니다.

정유년은 60간지 중 34번째인 해로 10간(干)의 4번째 붉은색을 나타내는 정(丁)과 12지(支)의 10번째 닭을 뜻하는 유(酉)가 결합된 해입니다.

정유년의 한자어 정(丁)이 뜻하는 '붉다'는 총명함과 밝음을, 유(酉)가 뜻하는 '닭'은 어둠을 몰아내는 빛,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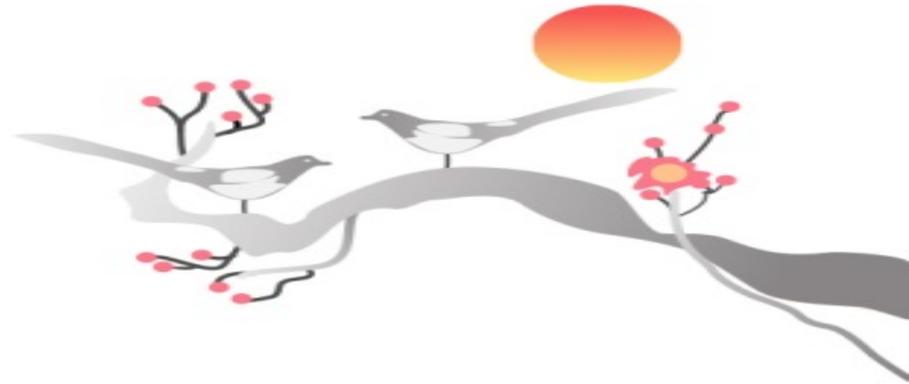
2016년 힘들었던 강북센터도 정유년 붉은 닭의 해를 맞아 어두웠던 기운을 몰아내고 찬란한 태양이 솟아오르는 2017년 희망찬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7년 1월 1일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정종남 배상

## 謹賀新年

*Wish you a Happy New Year*



## [개별ILP평가회] 16년 참여자들의 자립생활을 돌아보며…….

박남주



지난 12월 16일 강북센터에서는 16년도 개별ILP 참여자들과 함께 사업 평가회를 진행했습니다. 16년 한해는 강북센터에선 유난히 우여곡절이 많았던 해인데요, 개별ILP도 사업담당자가 중간에 바뀌는 등 예측 못 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강북센터 모토가 뭔가요? 하면 된다! 안되면 되게 하라!입니다.

여기에 저는 '이가 없으면 잇몸' 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서울시센터지원 사업팀은 아니지만 신입 분들의 사업진행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지원사격으로 투입된 경험(?)으로 인해 사업 종료 시기인 12월에 주최하였던 개별ILP 평가회 진행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15년도 개별ILP와 비교해 봤을 때 16년도 개별ILP에 참가했던

분들은 대부분이 발달장애인이었다는 점이 특색이었는데요,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를 지원하는 파격적인 사업진행으로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많은 참가자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사연 하나를 소개하자면 시설에서 자립생활 주택로 전환했다가 적응 문제로 다시 시설로 재입소, 그 후 혼자서 시설에서 독립하셔서 자립생활을 시작한 김미남(가명)씨가 있는데요. 자립생활주택에서 자립을 한 경우라면 서울시 탈시설 정책의 일환으로 탈시설자립생활정착금을 받아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었지만 행정절차 상 시설로 재입소한 뒤 혼자 자립을 시작한 김미남씨가 자립정착금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시설 거주하는 동안 저축한 돈으로 보증금 500만원을 마련하

여 수급비로 월세 30만원짜리 반지하방에서 자립생활을 시작한 미남씨는 변변찮





은 가구 하나 살 돈 없이 주변의 도움으로 헌 책상이나 의사들을 기부 받아 살림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구하는 자에게는 항상 길이 있다고 했던가요..? 손재주가 좋은 미남씨에게 저희 강북센터의 개별 ILP 지원으로 목공예수업의 기회가 제공되었고 본인이 만들고 싶은 가구들의 목록을 함께 작성하여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남씨가 가장 먼저 만들고 싶었던 가구는 자신만의 작은 우체통입니다. 이유를 묻자, 자신이 항상 꿈꿔왔던 집에는 예쁜 우체통이 있다는 대답을 한 미남씨 덕분에 다들 미소를 지었더랍니다. 우체통 외에도 미남씨가 만들고 싶고

꼭 필요했던 가구들은 책상, 탁자, 의자, 신발장, 식탁 등이었는데요 부피가 꽤 큰 가구들도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미남씨의 사연 외에도 발달장애인 정리정돈컨설팅, 재활농구수업연계, 부산여행, 탁구교실 등 개별의 욕구와 자립생활실천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고 사업진행이 쉽지만은 않아 담당자들이 고생하였지만 그 수고 덕분에 참가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이제 16년도 한 해가 다 가고 17년 정유년이 밝아왔습니다. 17년에는 더욱 업그레이드 된 자립생활프로그램들로 함께할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2016년 하반기 실무자 역량강화 워크숍

주영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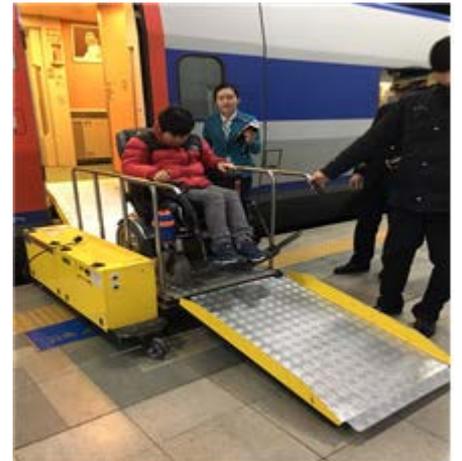


2016년 12월 22일(목) ~ 23일(금) 1박 2일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식구들과 함께 하반기 실무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가게 되었다.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되는 워크숍으로 장소를 선정하기 까지 꽤 고민이 많았다. 수 차례 회의를 거쳐 우리의 워크숍 장소는 부산으로 선정됐고 처음으로 멀리 떠나는 워크숍 장소에 다들 의아한 모습도 보였지만 어찌됐건 설레는 마음으로 워크숍이 다 가오기를 기다렸다.

부산 출신 정종남소장님께서 식구들이 머무르기 좋을 호텔과 회의실에 대한 팁을 주

서서 곧장 예약을 하고 부산왕복 티켓까지 끊으니 부산으로 간다는 게 실감이 나기 시작했다. 워크숍 출발 이틀 전, 일주일 내내 좋았던 날씨가 갑자기 12/22일(목) 부산으로 떠나는 날부터 비가 온다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듣고 걱정이 앞섰다.

12월 22일(목) 워크숍 출발 당일, 회의에 필요한 자료와 노트북 등 꼼꼼히 체크를 한 뒤 서울역으로 출발을 했다. 출발 1시간 전 간단한 점심으로 먹을 햄버거 세트와 함께 12시 부산행 KTX에 몸을 실었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박동렬국장님과, 박계형팀장님께서 상대적으로 공간이 넉넉한 실에 탑승하셨다. 휠체어 승강리프트를 이용하여 KTX를 탑승하는 모습 등 장애인/비장애인 직원이 함께 어울려 서로를 이해하며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신 정종남 소장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었다.





감동도 잠시…… KTX에 탑승한 우리는 모두 수면을 취했다. 그렇게 2시간 40분을 달려 부산역에 도착했을 땐 다행히 비는 오지 않았지만 엄청난 칼 바람이 불었다. 호텔 입실까지 1시간 정도가 남은 상황이라 주변을 관광하기도 애매한 시간이었다.

“부산 왔으니까 어묵 하나 먹자!!!” 소장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 같이 부산역 입구 쪽에 있는 가게에서 어묵과 떡볶이를 먹으며 시간을 보냈다. 입실시간 보다 조금 일찍 호텔에 들어가 대기하며 이런저런 워크숍 진행방향과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렇게 4시 정각에 체크인을 한 뒤 짐을 짹싸게 두고 호텔 내 대여한 회의실에 들어

가 2016년 전체적인 사업평가에 대한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올 해 사업평가와 2017년 사업계획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강북센터 사업을 체계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 2차례 회의가 끝난 뒤, 즐거운 뒤편이 시간을 갖고 다음날 오전에 있을 회의를 위해 일찍 취침을 했다. 그렇게 강북센터 1박 2일 하반기 실무자 역량강화 워크숍은 우리 센터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으로 실무자들의 역량강화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쳤다.

## 2017년에도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 화 이 텅 ♡



# [자립생활주택]\_입주자들 보라매 재난체험관 방문과 외식문화체험

박남주

12월 8일, 20일 가형주택 입주자 대상의 안전교육의 일환으로 보라매안전체험관 방문을 진행하였다. 우영군의 학교일정으로 인해 부득이 하게 1차 2차로 나누어 진행하였지만 1차 체험관 방문 후 외식문화체험 진행, 2차 방문 후 크리스마스 파티진행으로 체험관 방문에만 그치지 않고 즐거운 경험을 연장선상에서 누리도록 계획하였다. 사실 안전체험관은 입주자들이 위기재난상황을 몸으로 체감하고 그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을 숙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마냥 즐거운 기억으로만 남겨서는 안 되며 반드시 위기재난 상황에 대한 민감성의 증진과 대처 매뉴얼 숙지가 동반된 경험이어야 한다.

8일에는 학수씨와 옥영아저씨가 함께 방문을 진행할 수 있었기에 보라매안전체험관까지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이동해서 비교적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동휠체어 이용자이신 옥영아저씨가 참여할 수 있는 체험관은 제한적이어서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는 재난대피상황, 대처 매뉴얼 계발이 시급하다는 점을 느꼈다. 또한 중증의 발달장애로 인해 인지능력이 비장애인보다 현저히 낮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가이드도 따로 마련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이도 어리고 지적2급이라도 비교적 기능이 높은 편인 우영군은 20일 날 체험을 진행하였

는데, 체험관 코스를 모두 참여하였고 노래방화재 체험에서는 자진해서 노래를 부르겠다고 자원하는 등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우영군은 안전관 체험까지 이동할 때에도 장애인콜택시가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 하였는데, 지하철 노선을 잘 알고 있고 본인이 대중교통을 좋아하는 점을 고려하여 진행하였다.



8일에는 안전체험관 방문이 끝난 뒤 외식문화 체험도 진행했는데, 우영군이 학교수업을 마치는 시간에 맞춰 안전체험관 방문을 종료하고, 외식체험을 하기로 계획했던 식당으로 향했다.

8일날의 외식문화체험은 ‘보양식 한방삼계탕’ 외식으로 진행하였는데 우영군을 제외한 모두가 윗삼계탕을 맛있게 먹었고 우영군도 본인이주문한 닭강정을 싹싹 굽어먹은 것도 모자라 활동보조인 선생님이 덜어주신 윗 삼계탕도 깨끗하게 비워냈다.

20일 역시 보라매안전체험관 방문 종료 후 번외 프로그램을 계획했는데 이는 우영군의 제안으로 인한 ‘크리스마스파티’ 진행이었다. 일정조율의 문제로 5일이나 앞당겨 진행된 크리스마스 파티였지만 집안을 가랜드와 예쁜 풍선들로 꾸며 파티 분위기를 내고 가형 입주자들은 산타복장을, 활동보조인과 코디는 루돌프 사슴띠를 하여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었다.



이번 크리스마스 파티는 나형 입주자까지 참가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나형 입주자인 민선군과 새로 입주한 신규 가형입주자들이 처음으로 정식 교류를 하는 기회가 된 것 같아 기쁜 자리였다.

# 2016년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평가회

주영경

2016년 12월 28일(수) 2시 ~ 5시 강북문화예술회관 행복실에서 2016년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평가회가 진행됐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우리센터 이용자분들이 한 곳에 함께 모여 2016년 강북센터에서 진행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총 평가와 추후 사업계획 및 진행방향 등 안내사항을 전달하고 센터와 회원들이 서로 의견을 소통하는 자리였다.

평가회 시작 전, 현수막 부착 및 다과준비 등 진행에 필요한 것들을 다시 한 번 꼼꼼 하게 체크한 뒤 2016년에 진행된 사업 전반적인 것들에 대하여 평가를 해보았다.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았던 2016년에는 강북 센터에서 강북구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제정을 가장 큰 실적으로 잡을 수 있었고 그 외에도 클리닝(세탁서 비스), 주택개조 (도어락, 리모컨스위치, 경사로 설치)에 따른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참가자의 만족도를 반영하여 내년 사업계획 시 클리닝과 주택개조(도어락 설치)의 횟수를 늘 리며 홍보범위를 넓혀 더 많은 참가자를 선정 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1년 사업을 마무리하는 자리인 평가회 자리는 센터와 센터 내 회원들이 2017년 센터 진행사업 및 방향을 함께 소통하여 반영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었고, 회원 분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여 그것을 반영하며,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더 나은 자립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응원해본다.

그렇게 3시간에 걸쳐 한 해의 사업을 종료 및 평가하는 시간을 통해 이용자와 회원들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추후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임을 약속하며 3시간에 걸친 평가회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



2016년에도 강북센터를 위해 힘쓰신 이용자 및 회원, 그리고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17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 나의 인턴생활

김성윤



2016년 5월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인턴을 시작해서 12월이 되었습니다.

인턴생활을 하면서 동료상담가 양성교육 기초과정, 심화과정, 보수교육 같은 교육은 업무능력에 필요하고 유익한 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료상담가 양성교육에 오셨던 강사님의 강의는 유익하고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교육이었습니다. 정보제공 업무를 통해 장애계의 이슈나 장애관련 소식과 정보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정보제공 업무 중에서 리우 패럴림픽에 대한 내용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인류애를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편의시설 로드맵

은 장애인의 편의시설에 대한 필요성과 다중이용시설에 편의시설의 필요성을 이해 하고 알 수 있는 업무였던 것 같습니다. 계단, 턱 등이 있는 곳에 경사로를 설치하면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약자, 임산부 등의 이동약자나 비장애인들에게도 편리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사로 같은 편의시설은 장애인에게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사로 같은 편의시설은 장애인의 접근권과 이동권을 편리하게 해주어 사회활동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입이 가능한 출입문의 설치나 좌식테이블이 설치되어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입식테이블 설치 또한 함께 병행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경사로, 출입이 가능한 출입문의 설치, 입식테이블 등의 편의시설이 편의시설 미 설치되어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면 무장애 사회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자립생활학교, 토론회, 집단자립생활기술훈련 ‘영화관람’, ‘체험 김치담그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외부활동의 참여는 저에게 업무능력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학교는 장애관련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UN장애인관리협약’, ‘장애학과 당사자주의’ 등의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쌓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항상 따뜻하게 해주시며 업무와 업무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신 소장님, 국장님, 팀장님, 간사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가자! 강북구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 행사로

문지수



‘아.... 추워!’

입김이 서릴 정도로 차디찬 바람이 부는 날, 12월 10일 오전 11:00, 강북구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의 막이 올랐고, 강북센터 식구들은, 차디찬 바람이 부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제막식에 참여하였다.

‘강북구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은 강북구청 가로수 길에서 진행하였고, 강북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에 인사말로 시작되었으며, 행사 중간 중간 반가운 얼굴들도 볼 수 있었으며, 강북센터 식구들은 즐거운 얼굴로 인사를 하며 제막식 행사를 관람하였다. ‘강북구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에는 사물놀이와 뮤지션들에 축하공연도 펼쳐졌는데, 인사동이 아닌 다른 곳에

서 사물놀이를 보니 뭔가 색달라 보였고, 뮤지션들의 공연도 신선하였다.

다음으로는 고등학생들이 나와 ‘강북구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에 대한 각자의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고, 강북센터 식구들은 추위에 덜덜 떨면서도 뜻깊은 ‘강북구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지켜보았다. 제막식은 점점 무르익어, 드디어 하얀 천에 가려져 있던 ‘강북구 평화의 소녀상’이 공개되었다.

‘평화의 소녀상’이 행여 추울까 봐... 노란 모자, 목도리와 신발 등을 착용해준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강북구 주민들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마음 한편이





흐뭇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해결 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다. '정신대'문제 라든지, '역사교과서'문제 '독도'문제 등등.....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기우린다면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 [칼럼] 최근 국정농간의 본질은…….

오재준

이번 칼럼에 내용은 온 국민에 마음을 촛불로 들끓게 만든 최순실게이트가 어떻게 해서 세상에 공개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언론은 사실 최순실씨의 만행에 대해 아무런 의미 없는 소리만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될 거품이이라고 생각한다. 문제에 핵심은 이번 일을 누가 왜 터트렸는가? 이다.

이번 박근혜대통령-최순실게이트는 새누리당 내 권력 싸움에서 시작되었고, 그들의 만행이 세상에 낱낱이 공개되었으며, 그것을 알려면 새누리당의 구조를 상세하게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누리당의 구조부터 알아보겠다.

새누리당은 지배하는 권력이 두 분류로 나뉘어져 있는 구조이다. 소이 과거 박정희 前대통령과 전두환 前대통령, 그리고 노태우 前대통령이 30년 동안 나라를 집권하였던 공안검찰, 경찰, 군부 출신의 독재 메커니즘으로 만들어진, 다시 말해 안기부(지금의 국가정보원)출신으로 만들어진 권력이 있고, 노태우 前대통령 이후, 김영삼 前대통령과 김대중 前대통령, 노무현 前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前대통령이 10년 동안 집권한 친재벌, 친언론으로 만들어진 권력이다.

이 두 권력이 지금으로 말하면 친박계와 친이계이고, 그들은 40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해 왔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타면 과연, 그 두개의 권력은 적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실제적으로는 적이 아닌 사돈지간이다. 이 두 가문들의 자식들을 정략결혼을 시키므로 인해서 손자·손녀를 공유하고 있고, 또 그 손자·손녀들은 양 가문에서 갖고 있는 대기업 주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구조이다.

이런 구조에서 새누리당은 지금 친이계와 친박계가 권력을 잡기위해 싸우고 있고, 그 권력 싸움의 시작은 2015년 성완중 게이트 부터 시작돼 정운호씨, 김기춘씨, 우병우씨, 이석수씨 등 계속 권력다툼을 하는 와중에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만행을 친이계가 언론으로 통해 터트려버린 것이다.

친이계가 최순실게이트를 언론에 터트린 목적은 올 연말 대선을 주도하기 위해 새누리를 버리고 제 3지대를 만들어 안철수와 반기문을 대선후보로 만든 다음 정권의 주도권을 잡을라하는 계획으로 나는 보고 있다.

친이계는 친재벌과 친언론의 매스미디어(mass media)를 통해 만들어진 권력이다. 친이계는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세뇌 시켜왔다. 그렇지만 세월호 사고 당시 오전 뉴스자막으로 “전원구조 “라는 오보가 내보내졌고,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못한 언론보도이었으며, 그 계기로 인해 그동안 언론의 거짓 정보에 속고 있었음을 우리 국민들이 깨닫게 되었고, 더 이상 그들의 교묘한 수에 당하지 않으리라! 진실에 눈을 뜨고 한걸음, 한걸음 느리고 답답하여도 올바른 민주공화국의 길을 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되었다고 나는 보고 있다.

느리지만, 천천히 민주공화국의 길을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예로 촛불집회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수백만 명이 모여 최장기간으로 시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폭력 없이 평화시위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여준 촛불시위는 비폭력 평화시위이며, 시위가 끝나고도 길거리에 쓰레기 하나 없는 깨끗한 거리는 정말이지 감동적인 상황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OECD국가 중에도 이를테면 프랑스는 홀라당 불을 질러 버리거나, 영국은 시위장이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미국은 상점을 약탈하는 등, 우리나라의 촛불시위의 모습은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지금 새누리당이 어떠한지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고 이리저리 작전을 피고 있지만, 그들에 생각대로 잘 안되어지고 있다고 보인다. 우리나라를 40년 넘게 지배해 온 그들이기에 어떠한 수로 또 권력을 되찾아 갈지 모르겠지만 이번 판에서는 그들이 무엇을 하든 그들의 뜻대로 되기는 어려울 듯 보인다.

## [장애인에티켓] 지체장애

- 방문하기, 사적인 물건에 대한 에티켓, 식사 초대/제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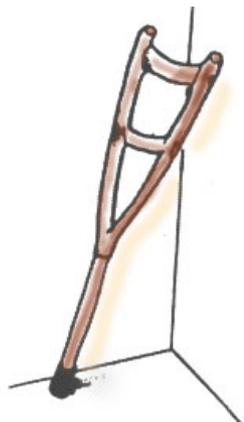
### 방문하기

집에 친구를 초대하는 것은 많은 이동장애인들이 즐기는 활동입니다. 많은 장애인분들이 이동의 불편 때문에, 방문보다는 초대를 많이 합니다. 초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휠체어를 사용하거나, 바닥에 물건을 함부로 두지 않습니다. 방문이 끝난 후, 초청한 사람이 물건을 정리하기 쉽도록 원래의 자리로 옮겨놓습니다.

### 사적인 물건에 대한 에티켓

장애인이 사용하는 휠체어 목발 기타 보장구들은 개인의 사적인 물건입니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허락 없이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사용자가 닿지 않은 곳으로 옮겨놓아서도 안 됩니다.





## 식사 초대/제공

이동장애가 있는 손님에게 더욱 즐거운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좌석이 편리한지를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 몸을 돌리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는 식탁의 앞쪽에 앉기를 좋아하고, 휠체어장애인은 식탁 다리가 방해되지 않는 중간 좌석을 선호합니다. 목발이나 지팡이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 보장구를 기대어 놓을 수 있는 벽 가까이에 앉는 것을 가장 편안해 합니다.

작은 접시 위에 음식을 높이 담지 않으며, 컵을 너무 가득 채우지 않도록 합니다. 음료를 제공할 때는 미끄러운 컵보다는 잔이 더욱 용이할 수 있고, 빨대도 함께 제공하면 마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손의 사용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서는 뼈를 고기에서 발라내어 주고, 과일에 껍질을 벗겨서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가 심한 경우는 식사 전부 혹은 일부를 먹여주도록 합니다. 음식을 먹여주는 경우, 장애인에게 음식을 모두 제공한 후 자신의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대로 자신도 함께 먹으면서 음식을 먹여줍니다.

손이나 팔에 장애가 있는 손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식사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장애인 보다 너무 일찍 식사가 끝나지 않도록 보조를 맞춰줍니다.



# 이달의 정보

## 2017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 정년보장과 최저임금의 상승

- 2017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회사들이 정년 60세 이상을 보장합니다. 작년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정년 60세 의무화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 등 전국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 2017년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7.3% 오른 6,47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임금체불을 상습적으로 한 사업주들을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젊은 층들이 많이 일하는 주요 프렌차이즈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 주민등록 변경과 출산세액공제 확대

-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6자리 변경은 올해 5월 30일부터 가능하다.
- 기존 일괄적으로 적용되었던 출산세액공제가 30만원에서 늘어났다.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70만원으로 차등 확대된다. 또한 출산지원을 위한 난임시술비 외료비 세액공제율도 20%로 상향되었다.

### 저소득층 우유급식 확대와 수급자 지원 조정

- 국민기초생활기초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게도 초, 중등학교 학생과 동일하게 우유급식이 동일하게 무상으로 제공된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 기준점이 되는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439만원에서 447만원으로 1.7% 오른다.

### 폐암 국가검진 시범사업과 점자여권 발급

- 하루 1갑 30년간 담배를 피운 55세~74세 흡연자들 가운데 8천명을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 중증시각장애인은 상반기부터 영문성명,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등 여권정보가 점자로 수록된 점자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점자 여권 신규발급은 여권법령 개정 후 실행될 예정이다.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swf1004/220900492347>

### **장애인주차증, 사각형→원형으로 바뀌고 본인·보호자용 구별**

장애인 주차증이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바뀐다. 또 지금까지와 달리 본인 운전용은 노란색, 보호자 운전용은 흰색 바탕으로 구별이 생긴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2개월 동안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를 교체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 표지는 노란색 사각형이었으나, 새 표지는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이다. 또 기존 표지는 본인용과 보호자용의 모양과 색상이 똑같고 글자로만 구분됐으나, 새로 교체되는 표지는 본인용은 노란색 바탕, 보호자용은 흰색 바탕으로 구분해 쉽게 눈에 띄게 했다.

새 표지에는 정부 상징 문양의 홀로그램이 들어가고 접촉 뒤 제거하면 표기 내용이 훼손되도록 하는 등 위·변조 방지 기능이 추가됐다.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를 이용하는 본인이나 가족은 거주지 읍·면·동센터에서 기존 표지를 반납하고 새 표지를 재발급 받으면 된다. 홍보·계도 기간인 8월까지의 기존 표지도 사용할 수 있지만, 9월 1일부터는 반드시 새 표지를 써야 하며 기존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고속도로 통행료와 주차료 감면 등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국 고속도로 영업소와 공영주차장, 유료 도로 관리 기관 등에 표지 변경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국가 유공자 자동차 표지도 장애인 주차 표지와 마찬가지로 노란색 혹은 흰색 배경의 원형으로 바꾸기 위해 국가보훈처와 협의 중이다.

자료출처- <http://www.bokjiro.go.kr/nwel/welfareinfo/livwelnews/news/retireveNewsDetail.do?srchListType=&srchDuration=&stDate=2016-12-03&endDate=2017-01-03&srchKeyCode=&searchWrd=&tmp1=&pageIndex=1&pageUnit=10&dataSid=6531882&fileName=>

삶은 생각하는 데로 굴러간다.

제발 자신에 대한 비난 메시지를 떨쳐야내라.

스스로 자기 인생에 낙인을 찍을 필요는 없다.

인생은 ‘한 방’이 아니라, ‘단 한 번’이다.

유은정,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중에서.....

